

'Personal-drug' Education for Undergraduate Student

배 군 섭

육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임상약리학과

P-drug이란 personal drug의 약자로서 환자에게 personal 하다는 것이 아니라, 처방자(perscriber)에게 익숙하여 personal하다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약물을 p-drug으로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좋은 지침이 들어있다. 이는 WHO의 후원을 받아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에서 1994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p-drug 개념자체와 교육방법에 대한 10일(2주)짜리 훈련과정에 일본 동경대학의 Tsutani 교수가 1998년 제 5차 과정에 참가한 후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1~3일짜리의 훈련 과정이 마련되었고, 2000년 여름 서울대학교병원에 재직 중이던 본인이 제 3차 일본 P-drug 워크샵에 참가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그 이전에 1995년에 발간된 WHO의 'Guide to Good Prescribing'이라는 교재를 통해 일부 임상 의사에게 알려졌지만, 이 교재는 2002년 말에야 '좋은 처방을 위한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한글판이 출간되었다. 대한임상약리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서울의대 의학교육연수원이 합동으로 주최하여 2001년 2월과 2002년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과대학교수들을 상대로 'Good Prescribing Practice Workshop'을 3일짜리 교육자훈련과정을 열었으며, 이를 통해 총 70여명의 의과대학교수가 훈련을 받았다.

2002년 여름부터는 서울대학교 약리학교실에서는 본과 2학년 약리실습 시간을 3회 정도에 걸쳐 '합리적 약물 처방(rational pharmacotherapy)'라는 제목으로 PBL교재를 마련하여 p-drug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이후 P-drug에 대한 교육은 연세대, 고려대 등에 정식제목의 학생실습시간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개념을 가진 교수들이 학생실습시간에 교육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 12월에는 서남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와 동일한 일정의 p-drug에 대한 PBL교육이 이루어졌다.

현재 서울의대 약리학교실에서 마련한 p-drug PBL교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Barnes 약리학교수가 학생용으로 만든 것과 형태는 유사하나, 한국실정에 맞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증례로 삼고, 다양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Barnes 교수는 처음에 그로닝겐 대학의 p-drug훈련과정에 학생자격으로 참가하였으나, 교육에 매우 훌륭한 자질을 보여 이후 p-drug에 대한 교육자를 위한 과정의 facilitator로 많이 참여하였다. 또한 후에 나온 teacher's guide제작에 깊이 관여하였다.

현재 서울의대는 PBL의 형태로 p-drug 교육을 본과 2학년 학생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다른 대학들은 그다지 형편이 좋지 않다. 강원대의 경우에는 본과 4학년 임상약리학교과목 시간에 1시간 정도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P-drug에 대한 교육은 내과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본과 3학년 정도의 학생에게 3일정도 소요되는 PBL 형태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며, 이것에 대한 시간확보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PBL 모듈에서 약물 처방부분에 p-drug개념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1시간 정도의 강의 수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P-drug 교육에서 항상 전제되어야 할 것은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과 의학논문에 대한 비판적 평가 기술(critical appraisal skill)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